

도시재생 정책 동향

Urban Regeneration Trends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 2025. 10. 2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용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용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이자율도 인하한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 2025. 10. 21.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 2025. 10. 2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정책Brief 제1034호] 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

국토연구원 | 2025. 10. 20.

청년은 타 연령 대비 수도권 집중양상이 두드러지며(2023년 기준 수도권 순유입자 수는 4.7만 명, 20대는 5.7만 명), 이는 일자리와 대학의 수도권 집중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함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2025 도시재생 컨퍼런스」개최

국토연구원 | 2025. 10. 30.

- (행사일시) 2025. 10. 30.(목) / 09:30~
- (행사장소) 여의도 FKI 타워
- (행사내용) 도시재생과 청년 참여, 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 등

제주도시포럼 2025 – 제주, 미래도시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 | 2025. 10. 29. ~

- (행사일시) 2025. 10. 29.(수) ~ 31.(금) / 10:00~
- (행사장소) 제주현대미술관
- (행사내용)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협력 세미나, 앞으로 10년의 도시재생 등



충남 도시재생 소식

2025 충청남도 도시재생 정책세미나"충남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세미나 | 2025. 10. 31.

- (행사일시) 2025. 10. 31.(금) / 13:00~
- (행사장소) 천안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6층 패치홀
- (행사내용) 도시재생 사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거점시설 운영 유형 및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

충남도, "도민과 함께"...도시재생·안전·청년·복지 전방위 성과

충남도 | 2025. 10. 24.

충남도가 도시재생부터 안전·청년·복지까지 도민의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청년 주거비 절감, 어르신 복지 확대를 통해 ‘체감형 도정’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산시, 충남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아산시 | 2025. 10. 26.

충남 아산시는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온양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가 지난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충청남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산시, 도시재생이 만든 ‘가을밤 영화제’ 개최

논산시 | 2025. 10. 24.

가을밤, 별빛 아래 논산시 연산면이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1일 연산별당 게이트볼장에서 ‘가을밤 야외영화제’를 열고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쫄비탈’이 상영됐다. 주민들은 가족·이웃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가을밤의 정취를 나누었다.

당진시, 청소년카페 수다박스 2호점 2025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당진시 | 2025. 10. 21.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수다박스2호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지난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공간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그 공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행사다.

당진시, 합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도시재생 경진대회 우수상

당진시 | 2025. 10. 23.

충남 당진시 합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용문)이 21일 충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2025 충남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사업 지원금 300만 원을 획득했다. 이번 수상은 당진시 농산물 기반 순환 경제 모델을 통한 도시재생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당진시, 주민이 주체가 된 도시재생 성공사례, 합덕백살카페

당진시 | 2025. 10. 24.

충남 당진 합덕읍 중심에 자리한 합덕백살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다. 합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100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시설로 이곳은, 지역 주민과 어르신이 한 팀을 이루어 마을의 일상을 다시 잇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